

제73차

미국 산업의학협회 학술대회 참관기

연세의대 산업보건연구소 문 영 한

제 73 차 미국 산업의학협회의 학술대회가 1988년 4월 23일부터 4월 29일까지 일주일간에 걸쳐서 개최된다는 소식은 작년 여름철부터 American journal of occupational medicine 을 통해서 광고가 나기 시작하여 알고 있었다.

본인은 1985년부터 미국 산업의학협회의 이사진들의 추천을 받아 이력서와 산업보건에 관련된 연구업적, 재직증명서 등을 제출하고 심사를 거친후 정회원으로 가입하게 되었는데 그후 부터는 정회원에 대한 갖가지의 산업보건에 관한 정보와 소식이 협회로 부터 발송되어 왔기 때문에 미국의 산업의학의 현황과 협회운영에 관한 사항은 다소 알 수 있는 기회를 갖게 되었다. 본인은 이 협회의 학술대회에 참석키 위해 학회참석신청서를 1988년 3월 25일까지 제출하고 학회개회전에 계획돼 있는 세미나 참석지원서도 3월 25일까지 제출토록 되어 있어 그 일을 마치고 Los angeles행 비행기인 KAL 012기편에 몸을 실은 것은 4월 24일 오후 3시였다.

그날의 날씨는 쾌청했으며 승무원 여러분은 명쾌한 태도로 써-비스를 해 주었다. 비행기가 이륙후 장시간의 비행이 계속된 뒤 동쪽의 하늘에 여명이 밝아오기 시작하여 얼마가 지난다음 Losangeles에 도착한 것은 탑승한 지 non stop비행으로 12시간이 소요된 현지시간으로

9시 05분이었다.

비행기에서 내려서 짐을 찾고난 뒤 미국 국내선인 Continental air line 으로 바뀌타고 목적지인 New onleans로 향하게 된 것은 Los angles 비행장에 도착해서 2시간 밖에 여유가 없었으나 부지런히 수속절차를 밟을 수 있도록 공항에 마중나온 분의 도움이 있었기 때문이라 생각하여 꽤 다행스럽게 생각되었다.

Losangeles에서 New orleans까지는 약 4시간 30분이 소요되었는데 도중에 애리조나, 뉴멕시코 상공을 지나는 동안 넓은 사막지대를 내려다 볼 수 있었던 것은 이색적인 감을 안겨다 주는데 충분한 것이었다. 텍사스를 지나 뉴우올리안즈 비행장에 도착한 것은 오후 4시 30분이었다.

바로 짐을 찾고 시내에 가는 택시를 뺐는데 셰라톤 호텔까지 탑을 합하여 \$ 20을 지불하게 되었다. 4월 23일은 셰라톤 호텔 41층의 배정된 방에서 잠을 자고 4월 25일(월) 아침 8시 20분이 되어서 등록장소인 New orleans marriott Hotel에 가보니 등록하러 온 사람으로 장사진을 이루고 있었으며 산업보건간호사와 산업위생전문가들을 위한 등록사무도 또다른 옆의 줄에서 시행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었다.

이곳 학술대회는 25일, 26일 이틀간에 걸친 세미나를 33연제에 대해서 3개소의 Hotel에

서 분산해서 실시하는 것을 필두로 27일(수)에는 미국산업의학 협회의 총회개최가 개행되는 순서로 되어 있는 것은 다른 학회때와는 좀다른 회의순서로 짜여진 것을 알 수 있었다.

33개 세미나 연제에 대한 청강 신청은 이곳에 도착하기전인 3월 25일까지 하도록 되어 있는데 이곳에 도착한 후에 신청하는 자도 많았으며 일부 세미나 연제에 대한 신청은 만원이 되어 신청서를 받지않은 곳도 있어 혼잡을 이루고 있었다.

회의 참가인원은 약 1300여명으로 인정되었고 회의장소는 5개 Hotel을 이용해서 14개 장소가 배정되었는데 33개의 세미나와 더불어 26개의 연구 논문발표와 귀빈초청 프로그램이 짜여져 있었다.

이 학회 회장으로서는 Givens, Austin E, MD라는 분으로서 캘리포니아주의 Antioch에 있는 Du pont 회사에 있는 분인데 다음 회장으로서는 Mobil 유류회사에 있는 cannella, Joseph M, MD씨가 선출되어 있으며 다음 회의는 보스톤에서 1989년 4월 29일부터 5월 5일까지 개최되게 되어 있다.

세미나가 시작되는 하루전인 4월 24일에는 협회주최로 Hole-in-one 골프시합이 있게 되어 있으며 산업의학에 관한 전시회와 래객들에 대한 사회적인 행사 계획과 참석자 가족들을 위한 관광계획도 세워져 있었다.

우선 세미나의 내용을 간단히 살펴 보면 다음과 같은 것이 있다.

세미나는 연제별로 번호가 붙어 있으며 No 1에서 부터 No 16까지가 4월 25일 첫날에 여러 곳에서 개최되었는데 아침 8시 30분 부터 오후 5:00 까지 계속되는 강좌가 대부분이었다. 일차진료의사로서의 활동, 폐기능검사, 산업중독학, 예술의학(댄스, 음악, 성악, 회화예술분야), 금연과 노동, 청력보전문제, 사업장에서의 재해의 등 급판정, 안과학, 중소기업에 대한 문제등의 연제가 있었는데 산업중독학에 있어서는 알미늄중독, 반도체 산업에 있어서의 재해와 화학공업분야에서의 생물학적 모니터링(monitoring)문제, 새로운 형태의 납중독, 화학물질의 발암성문제가 언급되고 세포병리학적 병인의 기

전문제, 급성이고 극독한 독성물질에 의한 중독학, 유화수소, 청산, 비소, 인, 일산화탄소, 불소등에 의한 중독문제가 다루워졌다.

금연문제에 관해서는 의사인 보건관리자의 책임이 크다는 것이 강조되었고 근로자의 청력보전을 위한 것으로는 소음환경평가 직업성난청의 진단에 있어서 4000 Hz에서의 딥(Dip) 현상이 문제인데 직업성난청은 양측성이고 대충적인 것이고 일정기간의 소음노출이 수반되어야 함을 예시하고 있으며 소음도 측정은 순음 하나만의 것이 아닌 $C_1/T_1 + C_2/T_2 \dots \dots C_n/T_n$ 에 이르는 복합적인 노출을 고려해야 한다고 하였다. 그리고 청력보전정책으로 청력검사치의 통계학적분석이 필요한데 분석판정에 영향을 주는 요소로서 청력검사기술의 표준화 기계조정(calibration) 검사장 환경, 피검자의 협조, 그 이전의 경험유무등이 문제되며 전체 대상자의 인구학적 문제로는 연령, 성별, 민족, 현재와 과거의 소음노출양상, 예방지식 습득, 청력보전의 방법의 형태 등에 따라서 성과가 달라질 수 있는 것을 강조하였다.

4월 26일에 있었던 세미나는 직업성 피부질환, 법규문제, 역학 및 통계에 관한 것, 알코올과 기타 약물남용, 이질적 작업환경에서의 안전문제, 산업보건학의 전산처리문제, 직업성질환과 면역학적문제, 근골격증후군 문제등이 다루워졌는데 직업성 피부질환은 패치(Patch) 피부검사, 직업성 피부암발생문제, 예방활동에 관한 것과 진단과 치료에 있어서 전산처리의 이용도가 논의되었고 역학 및 통계학 분야의 전반적인 것이 언급이 되었다.

알코올과 약물중독에 있어서는 알코올 중독의 조기진단과 약물중독과의 간섭 개재에 대한 것이 있었고 코카인 중독에 대하여 설명이 있었다. 직업병에 대한 면역학적인 검토는 인체에 있어서의 면역학적 작용의 계통에 대한 검토와 항체형성계통, T-세포계통, 식작용계통, 대식세포 계통, 보체계통등 전반적인 언급이 있었고 IgE에 관한 토론과 마스트 세포와 직업성 호흡기질환과의 관계의 토론이 있었다.

직업성질환의 임상적응용에 관한 과제에 대해서는 직업성천식, 뉴모나이트스의 과민성, 호흡

기질환에 대한 면역학적 기술의 이용과 질병 진단과 원인물질 발견을 위한 흡입자극을 통한 시험방법의 응용 등이 논의되었다.

제 73 차 미국산업의학협회 학술대회는 4월 27일부터 4월 29일까지 개최되었는데 개최식은 4월 27일 아침에 있었고 Given Austin E 협회회장의 개회식사로 River gate Exhibition Center에서 시작되었다. 회의장은 1300 명을 수용하는데 충분하였으며 초청연사로는 Macdonald Donald 씨가 HHS activities 로서 행정실무자, 알코올, 약물남용, 정신보건 실무에 대한 내용설명이 있었고 Goldstein Bernard D 씨의 occupational and environmental medicine에 있어서의 physician의 역할을 담당하는 위원회에 대해서 설명이 있었고 Sappington Lecture에 대한 사전설명을 Tetrick Lain씨가 한 연후에 미국 NBC의 today show에 나오는 Ulene Art씨가 Whose Doctor are you anyway? 이라는 제목으로 산업보건역사의 나갈 길을 해학적인 내용을 가지고 재미있게 의견 진술하는 것을 들 수 있었다.

그리고 4월 28일에는 Annual Business Meeting이 Rivergate Convention Center에 있었는데 본인도 교육담당자인 myers Richard S. 씨를 통해서 참석할 수 있었으며 본인 소개를 할 기회를 얻을 수 있었다.

학술대회의 일정중에 미국 산업의학을 전공한 사람을 위한 예방의학 전문의 시험위원회의 위원들이 나와서 앞으로 치를 산업의학 전문의 시험(the board Certification Examination in occupational medicine)에 관한 안내와 질의 응답 시험을 마련한 것을 보았는데 미국 산업장에 있어서의 산업의학의 활동은 엄격한 국가 고시에 입각한 통제가 있으며 학회에 참석하는데 있어서는 의사들의 교육을 계속하기 위한 미국의 사회의 ACCME의 인가를 받아 Category I의 학점으로 따져서 13 1/2 학점을 딸 수 있고 세미나를 오전·오후 모두 들을 경우는 category I의 6시간 학점을 얻을 수 있게 되고 오전만의 경우는 일강좌당 category I의 3시간 학점을 얻을 수 있게 되어 있다.

계속해서 학술논문 발표가 4월 29일까지 진행되었는데 중에서 눈에 띄는 것은 독성물질의 등록, High Risk를 유발하는 것에 대한 사전홍보, 유해독성물질 조정에 관한 법규적인 문제에 대한 소개가 있었고 벤젠과 염화메틸렌, 부타딘에 관한 OSHA의 기준 설명, 기계유류의 미스트로부터의 피해, 정유회사의 사망을조사 생식기에 미치는 독성과 생식성 변이원성문제, 대량재해발생에 대한 대책과 법적 조치문제, 근로자요통문제, 요통 집단검진 방법, 석면에 관련된 질병과 진단(X-선 사진판독 포함), 해양오염과 관련된 유해폐기물 문제, 유기용제의 신경독성학적문제와 연구지원문제등 이었다.

참고삼아 미국산업의학협회(American occupational medical association)와 미국산업의학학회(American Academy of occupational Medicine)는 학회를 각각 따로 갖고 전자는 매해 4~5월에 후자는 매해 9~10월에 각각 미국의 다른 지역에서 가졌는데 양자를 합하자는 소리가 높아 그 방향으로 이야기가 조정되는듯 하나 앞으로의 귀결이 주목이 된다.

끝으로 본 협회의 학술대회에 참석하는 동안 래빈들을 위한 안내광고에도 나와 있듯이 New Orleans는 항구이고 불란서풍의 건축과 풍속을 쉽게 볼 수 있으며 유명한 French Quarter에 있는 Brennan이라는 음식점에서 아침식사를 \$38이나 주고 먹었다는 자부심?과 예술과 골동품을 열심히 선전하는 것을 듣고 책자도 받아 보았다는 점은 내용도 잘 알지 못하고 신사대우를 받았다는 여음이 기억에 남게 된다.

또 한가지는 미국의 명문교의 하나인 New Orleans에 있는 튜레인 대학교(tulane university) 의과대학의 한국인 학생 3명과 저녁식사로 하고 웨라톤 호텔의 내방에서 새벽 3시까지 의학교육과 미국의료계의 한국인 진출문제 그리고 기초의학 분야의 우수한 인재들의 관심유치와 지원 대책등에 대해서 진지한 토론을 가졌던 것은 도도히 흐르는 미시시피강물에 한국의 의지를 불태워 금자탑을 세울 수 있는 면학도의 기개를 북돋아 준 시간과 연결시킬 수 있는 가능성을 지니게 된 데에서 어떤 의미를 갖고 싶다.